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당선작>

작품명: 싸움소 혈령이

작가명: 황장섭

기획의도: 장관을 이뤘던 진주의 큰판 소싸움대회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여 투우장은 남강백사장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서장대 및 고수부지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 경기방법도 현대화하여 백사장에서의 제 맛은 잃었지만 만약 본 작품이 영상화가 된다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요즘 세대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진주의 큰판인 소싸움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가 되어 대한민국의 큰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 작품을 기획하였습니다.

시놉시스: 등장인물

- 1980년대 인물 -

차승원 : 30대, 농사꾼 겸 싸움소 조련사. 도박꾼 도끼의 술수에 말려 대회에서 지자 같은 마을의 친구인 송강호를 의심하는 와중에 아내가 뇌종양으로 죽자 고향 진주를 떠난다. 불우한 삶을 살다 간암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고향의 중용스님에게 말썽꾼 아들 태현을 부탁하고 숨진다.

한승숙 : 30대, 차승원의 아내. 뇌종양에 걸려 어린 아들 태현을 두고 사망. 백강숙과는 같은 마을에 사는 절친 사이.

송강호 : 30대, 싸움소 조련사. 승원이 고향을 떠난 후 여러 소싸움 대회를 석권하며 주목받

는다. 그러던 어느 날 도박꾼 도끼가 접근하여 큰돈을 내 놓으며 승패조작을 요구하니, 친구인 차승원이 자신을 의심하며 고향을 떠난 이유를 알게 된다. 이에 송강호는 도끼의 계락을 역이용하여 도끼가 큰돈을 잃게 만들어버린다. 이로 인해 도끼의 보복으로 송강호 부부는 어린 딸 정아와 싸움소 한 마리를 숨을 거둔다. 그 후 정아는 인근 자재암에서 아버지의 친구인 중용스님에 의해 자란다.

백강숙 : 30대, 송강호의 아내. 도끼의 방화로 어린 딸 정아와 싸움소 한 마리를 남겨두고 두 부부 사망.

- 과거 및 현재 공존 인물 -

중용스님 : 차승원과 송강호의 절친한 친구. 마을뒷산에 있는 자재암의 주지. 괴팍하며 장난을 좋아하지만 마음이 따뜻하다. 도끼의 방화로 고아가 된 정아를 자재암에 데려와 함께 싸움소를 키운다. 후일에 고향을 떠났던 차승원이 죽자 태현을 데려와서 사찰에서 함께 지내며 마음을 잡아 새사람이 되도록 마음 써 준다.

도끼와 쫓치 : 소싸움 판을 다니며 불법 도박을 일삼는다. 도끼로 인해 절친했던 차승원과 송강호는 모두 불행해졌고, 그의 아들딸들은 고아가 되었다. 후일에 차승원과 송강호에게 했듯이 태현에게 승부조작을 모의하다가 태현이 역이용하여 모진 복수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

태현 : (남 주인공) 25세, 차승원의 아들. 홀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마약범죄와 연루되어 경찰에 쫓긴다. 중용스님을 만나 진주로 자재암에서 은둔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싸움소를 조련하고 있는 병어리 아가씨 정아를 만난다.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에 빠진다.

정아 : (여 주인공) 27세, 송강호의 딸.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는 착한 여인이다. 자신의 부모가 도끼의 방화로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과 언어장애가 생겨 병어리가 되었다. 중용스님과 자재암에서 싸움소를 키우다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태현을 만나함께 싸움소를 조련하여 대회에 나간다. 그러는 과정에 둘은 사랑에 빠지고~

기타인물 - 깡패들, 형사, 다방아가씨 등등

줄거리

경남 진주 어느 시골마을.

차승원과 송강호는 부랄 친구이며 싸움소를 조련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이 둘은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여인 한승숙, 백강숙을 사랑하는데 사각관계이다.

차승원은 백강숙을 짝사랑하고, 백강숙은 송강호를 사랑하며, 송강호는 한승숙을, 한승숙은 차승원을 짝사랑 하는 것이다.

혼기가 차도 이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니 마을 뒷산 자재암의 스님이며 차승원과 송강호의 친구인 중용스님의 재치로 여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다. 하여, 차승원은 한승숙과 결혼하여 아들 태현을 낳고, 송강호는 백강숙과 결혼하여 딸 정아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7년이 흐른 어느 날. 시내를 다녀온 중용스님의 권유로 두 사람은 싸움소대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싸움소를 조련하는데, 차승원의 아내 한승숙이 급성 뇌종양에 걸리게 된다.

송강호는 수술비를 걱정하는 차승원을 우승시키기 위해 출전한 소들 중에서 강한 소들과 붙어 승리해가며 결승에 오르고, 차승원 역시 결승에 진출한다.

송강호는 결승을 앞두고 자신이 저 주기로 계획을 짜는데, 일이 틀어지고 만다. 그것은 소 싸움판의 도박꾼인 도끼의 출현 때문이다.

도끼는 차승원에게 접근하여 송강호의 소에게 설사약을 먹이라고 제안하지만 그것을 들을 차승원이 아니다. 이에 도끼는 그 설사약을 차승원의 소에게 몰래 먹여 버리니 다음날 결승에서 차승원의 소는 설사를 하며 패배하고 만다.

결승에서 패배한 차승원은 도끼가 송강호에게도 제안 했을 것이며, 송강호가 우승욕심이 생겨 수락한 것으로 오해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끼가 가지고 있던 설사약의 빈 봉투가 송강호의 주머니에 있었으니 말이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승원은 다짜고짜 송강호에게 주먹질을 하며 절규한다. “니 내 친구 맞나? 내 친구 맞나?”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 맞은 송강호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차승원은 친구가 배신

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날 밤. 차승원의 아내는 뇌종양이 급성으로 변저 사망하자,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5살짜리 아들 태현과 함께 고향을 떠난다.

아내를 잃고, 형제 같았던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차승원이 고향을 떠난 후 송강호는 소싸움 대회를 석권하며 이름을 떨친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대회에서 도끼가 다시 움직인다. 이로 인해 차승원이 자신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송강호는 복수를 다짐하며 저야 할 판에서 이겨버린다. 해서, 도끼는 큰돈을 잃게 되니 도끼가 분풀이를 한다.

송강호의 집에 잠입하여 불을 지르니 두 부부는 사망하고, 잠결에 도끼의 방화모습을 지켜본 일곱 살짜리 정아와 싸움소 한 마리만 목숨을 구하지만, 정아는 그 충격으로 기억상실과 실어증이 생겨 병어리가 되어버린다.

병어리가 된 정아는 아버지의 친구인 중용스님에 의해 양육되는데 아버지가 남긴 싸움소를 키우며 자재암에서 살게 된다.

20년 후.

어느 날 중용스님은 차승원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상경하여 과거에 송강호가 꼭 전해 달라던 말을 전해준다. 그 말은 “나는 니 친구 맞다.” 라는 것이었다. 스님에게서 모든 것을 전해들은 차승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 강호는 내 친구지. 내 친구...” 하며 눈물짓다가 말썽꾼으로 자라버린 아들 태현을 부탁하고 사망한다.

스님은 경찰에 쫓기는 태현을 자재암으로 보내고 장례를 치른 후 자재암으로 돌아온다. 자재암에는 어느덧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정아가 있다. 정아는 20년 전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온 싸움소의 혈통을 이어받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 소는 겁이 많은 겁쟁이 소다. 그래서 다른 싸움소의 연습상대를 해주고, 그 댓가로 몇 푼의 돈을 받아 암자의 살림에 보태고 있다.

태현이 오니 적적하던 자재암에 화기가 돈다. 이들은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다. 그러는 과정에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태현은 대회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한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과 정아의 처지가 답답하여, 거기에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두 사람은 겁쟁이 소를 싸움소로 조련한다. 산을 달리고 들판을 달리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

고 정아는 옛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살아난다.

드디어 큰 대회가 시작되고 태현의 별명으로 지은 싸움소인 혈령이가 승리를 해 나간다. 그러자 두 집안의 원수인 도박꾼 도끼가 또 접근을 하고, 옆친 데 뒤킨 격으로 경찰은 수배망을 좁혀오고, 또한 태현의 반대파 깡패들이 진주바닥에 나타난다.

이에 태현은 중용스님의 말을 회상하며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히고, 시간을 달라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과 정아가 외출한 사이에 깡패가 자재암으로 들이닥쳐 태현은 그들과 맞서다가 상처를 입는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스님과 선무도 고단자인 정아의 도움으로 깡패들을 제압하고 나니,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쳐 모두 연행된다. 태현은 형사에게 대회 마칠 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니, 경찰은 그에 따른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 예전 송강호의 싸움소 혈통을 이어받은 혈령이는 승리해가고, 이로 인해 병어리 여조련사 정아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조련사” “언어장애를 이겨내고 싸움소를 키워낸 조련사.” 등등 찬사를 받는다.

그 즈음에 도끼는 혈령이의 실력이 챔피언 감인 것을 알아채고, 도박꾼들을 끌어모으는데 모두들 혈령이가 이기는 쪽으로 걸려고 한다. 이에 도끼는 그 반대로 돈을 걸고 태현에게 접근하여 협박을 한다. 결승에 오르면 무조건 패하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현상수배범이니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정아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이에 태현을 그렇게 하겠다며 수락한다.

드디어 결승전날 아침, 도끼는 설사약을 직접 혈령이에게 먹이고 경기장으로 향한다. 이제 잠시 후면 자신에게 엄청난 배당이 떨어질 것이라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끼의 착각이었다. 태현이 미리 도끼의 품속에 있는 설사약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벌어지고, 막상막하의 경기가 진행되면서 혈투로 벌어진다. 조련사 정아는 부모를 잃고 병어리가 되어 고달픈 삶을 살아온 자신과, 역시 부모를 잃은 도망자 태현, 그리고 싸움소의 연습상대만 하며 살아온 겁쟁이 혈령이, 이들 모두가 어두웠던 지난날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혈령이가 피를 흘릴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며 독려를 한다.

몇 시간의 혈전 끝에 드디어 혈령이가 우승을 하고, 인생의 패배자였던 태현과 정아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뿔 듯이 기뻐하며 포옹한다. 정아는 모든 기억을 되찾고, 대형 스크린엔 이들의 모습이 비치고, 병어리 정아의 장애를 아나운서가 소개하니 관객들은 기립하여 인간승리를 박수로 축하해 주며 기뻐한다.

그러나 단 두 사람. 도끼와 그의 수하 쫓치는 얼굴이 사색이다. 전 재산을 모두 건 도박에서 패했으니 말이다. 그것뿐이 아니라 도끼가 습관적으로 먹던 용각산 가루를 태현이 전날 밤에 설사약으로 바꿔치기 해놓았기에 경기가 끝날 즈음에 도끼는 탈진할 정도의 설사를 하고 병원차에 실려 간다.

우승을 하고 자재암으로 돌아온 스님과 정아, 그리고 태현. 이제 내일이면 형사가 태현을 데리러 오는 날이다. 달밤에 법당 앞 계단에 앉아 별을 보는 두 사람. 잠시 후 정아가 불에 그슬린 오래된 사진을 내미는데 거기에는 어린 시절 태현이 정아의 불에 뽀뽀하는 모습이 들어있다. 태현은 20년 전처럼 그렇게 뽀뽀를 준다.

다음날. 경찰차에 실려 자재암을 떠나는 태현. 그 뒤를 머뭇거리며 뒤따르던 정아는 소리를 지른다. “기, 기, 기~ 다릴게. 기다릴게~” 말문이 터져버린 것이다. 소리를 들은 태현이 잠시 차에서 내리고 두 사람은 오래고도 깊은 포옹을 나누고, 태현은 다시 경찰차에 오른다.

몇 년 후.

석양 지는 들판 길에 소를 타고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으니 바로 태현과 정아다. “끝”

시나리오 본문

#1. 시골집 /밤

깜깜한 밤.

검은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와 집 주변으로 휘발유를 뿌린다.

#2. 방 /밤

(E) 덜거덕

방안에서 잠자던 정아(7세)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본다.

휘발유를 다 뿌린 검은 그림자가 라이터를 켜니
손등에 도끼문신 클로즈업 되고 집에 불이 붙는다.

급히 자리를 벗어나는 검은 그림자.

#3. 안방 /밤

잠에서 깬 30대 부부가 나오려고 하다 천장이 무너지고
비명과 함께 불길에 휩싸인다.

#4. 마당 /새벽

전소된 집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아낙1 날벼락도 유분수지 대체 먼일이고?

아낙2 쫓쫓. 그케 말이다. 졸지에 생목숨이.....

아낙3 (정아 쳐다하며) 불쌍해서 우짜노?

타다만 토끼 인형을 안고 멍하게 잣더미를 바라보는 정아.

정아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30대의 스님.

자막 : 2010년 초가을

#5. 부뚜막 /인천, 밤

부둣가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두 사내가 서로 가방을 바꾼다.

한 사내가 배로 뛰어 내리니 배는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모자를 폭 눌러쓰고 가죽옷을 입은 사내(차태현, 25세)가 부둣가를 걸어간다.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켜고 두 대의 차가 나타나더니 태현 앞에 서고
좀 무식해 보이는 깡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다.

컨테이너 사이를 오가며 싸움을 하는 이들.
그러다가 포위당하는 태현.

두목으로 보이는 깡패(35세)가 거들먹거리며 나선다.

깡패1 니가 혈령이라는 새끼여?

태현 (좌우를 살핀다).....

깡패1 괴기밥 안 될라 카면 (가방을 달라는 손짓).....

갑자기 태현이 달려가서 돌려차기를 하지만 헛발질.
난투극이 벌어지며 두들겨 맞는 차태현.

이때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들이 달려온다.

(E) 꼼짝 마라. 꼼짝 마라.

태현은 주위를 살피다가 바다 쪽으로 달아나니 깡패들도 도망간다.

경찰 차태현, 서. 서. 안서면 쏜다.

(E) 탕!

총소리 울리고 밤바다로 뛰어드는 태현.

#6. 자재암 /낮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 (중용, 55세)

우편배달부의 오토바이가 경내로 들어온다.

편지를 전하는 우편배달부.

“서울특별시 중구..... 김 승원”이라는 글자가 클로즈업 된다.

#7. 서울 큰 병원 암 병동 / 낮

초췌한 모습의 차승원(55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고
스님이 손을 잡고 있다.

스님 그, 그러니 오해를 풀게.....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하라고.....

승원 (침통한 표정)

스님 자네 친구 맞다. 라고 하였네.

승원 (눈물 흘리며) 그, 그래 강호는 내 친구지.....

스님

(시간 경과)

승원 (숨가빠하며) 고, 고향에 가고 싶, 철, 태현을 부탁.....

승원이 숨을 멈추자 스님이 눈을 감겨 주고,
간호사가 차승원의 얼굴을 덮는다.

스님 나무관세음보살.....

병실 문이 열리면서 피투성이 된 태현이 뛰어 들어온다.

태현 (침대를 보더니) 아, 아버지. 아버지~~

#8. 병원 영안실 입구 복도 / 저녁

영안실에서 나오던 스님이 복도에서 어떤 사내가 사진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묻는 모습을 본다.

#9. 병원 정원 등나무 아래 / 저녁

괴로운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태현에게로 다가간 스님이
주위를 살피며 쪽지를 건넨다.

#10. 들판 / 낮

잡풀우거진 들판.

두 마리의 싸움소가 눈의 흰자를 드러낸 채 머리를 맞대고 있다.

거친 숨소리~

발의 움직임에 따라 흙먼지가 날린다.

50대의 두 사내가 소 옆에서 소리를 지른다.

사내1 밀어. 밀어~ 그래 자세 낮추고~ 좋아~

좀 떨어진 곳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는 여인 (송정아, 27세)

까무잡잡한 피부. 긴 머리는 손수건으로 묶고 청바지와 헐렁한 남방을 입고 있다.

한 마리의 소가 뒤를 보이며 피하니 사내가 싸움을 중단시킨다.

사내1 (소를 쓰다듬으며) 됐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시간경과)

정아의 트럭에 방금 전 뒤를 보이며 도망친 소가 실려 있다.

정아가 장갑을 벗으니 사내가 돈 몇 만원을 건넨다.

사내1 덕분에 훈련 잘 했다. 다음에 또 부탁하제이~

정아는 돈을 쑤셔 넣고 고개를 꾸벅.

차를 몰고 떠난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트럭.

사내2 지 애비 닮아가 생긴 거는 딱인데 겁이 많으이.....

사내1 그케 말이다. 챔피언 같인데~

사내2 정아도 이제 혼기가 짝 찼는데.... 말을 못하이...

사내1 어린마음에 얼마나 놀랐으면 말까지.... 쫓쫓쫓.

#11. 장흥마을 / 오후

트레이닝복을 입고 배낭을 멘 태현이 장흥 마을버스 정류소에 내려 골목길을 걸어간다.

어린 시절 자신의 집 앞으로 지나가며 고개를 갸웃한다.

마을을 지나 저수지 옆길을 걸어가는 태현의 뒷모습.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자 손을 들지만 세울 것 같지 않다.
길 중앙으로 뛰어들어 팔을 벌리니 바로 앞에서 급정거 한다.

깜짝 놀란 트럭 운전자 정아가 핸들에 머리를 묻고 있으니 태현이 다가가 창문을 툭툭 친다.

태현 아줌마, 자재암까지 줌.....

정아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풀린다).....

태현 자재암까지 줌~

정아가 고개를 끄덕하니 태현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데 차문을 잠근다.
손잡이를 잡고 힘을 쓰던 태현이 정아를 보니 손짓으로 뒤 짐칸을 가리킨다.

태현이 황당한 표정을 짓자 정아는 출발~

달려온 태현 겨우 짐칸에 올라탔는데 소가 있고, 뒷발에 한 대 차인다.
비명 지르는 태현. 거울로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아는 피식 웃는다.

휴대폰에 스님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

“한 놈 같 테니 먹이고 채워.”

#12. 화장장 / 오후

연기가 하늘에서 사라진다. 스님이 하얀 보자기에 싸인 상자를 품에 안고 나온다.

#13. 자재암 / 오후

자재암 도착하여 정아가 트럭의 뒷문을 따고 태현은 뛰어내린다.

태현 아줌마, 여기 사슈?

정아 (빠히 쳐다보다 계속 일을 한다).....

태현 (고개 갸웃하며) 여, 여기서 사냐니까?

정아는 대꾸 없이 소를 내려 우사에 집어넣고 사료를 준다.

태현은 법당 계단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계단 밑에 조그맣게 쌓아둔 돌탑을 발로 찬다.

무너지는 소리에 정아가 고개를 돌리더니 화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온다.

태현 귀머거리는 아니네! 히히히.

정아가 태현에게 다가오며 빗자루를 집어서 태현을 췌다.

태현은 “아야~ 아야~” 소리 지르며 마당으로 도망 다니고 정아는 뒤따른다.

#14. 승방 / 저녁

태현이 방에 누워 자신이 죽으면 자재암으로 가라고 하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정아가 인기척을 내며 문을 열더니 밥상을 들이고는 먹으라는 시늉을 하고 나간다.

#15. 정아방 / 밤

앨범을 펼치니 불에 타다 말은 사진이 있다.

승원과 강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빨간 목도리를 하고 소의 등에 타고 있는 사진.

자재암 대웅전 앞 계단에 앉아 태현이 정아에게 뽀뽀하는 사진 클로즈업.

정아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한다.

#16. 자재암 / 아침

정아가 승방의 문을 한참 두드리니 태현이 하품을 하며 문을 연다.
빗자루를 들어 보이며 턱으로 마당을 가리킨다.

태현 (황당한 표정) 마, 마당 쓸라고?
정아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
태현 (잠시 생각더니) 그, 그러지머. 밥값은 해야지~

태현이 마당을 다 쓸고 이마의 땀을 닦는데 정아가 삼을 주며
우사를 가리킨다.

태현 (황당 표정) 소, 소똥?
정아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

#17. 우사 / 아침

태현이 우사에서 소의 뒷발질을 피해가며 삼으로 소의 분비물을 치운다.

얼굴에 소똥도 묻고~

우사 밖으로 나오니 정아가 밥 먹으라는 시늉을 한다.

#18. 대웅전 / 낮

정아는 설거지를 하고 태현은 대웅전에 들어가서 살피다가 시선이 멎는다.

강호와 강숙의 위패와 영정사진이 있고,
그 옆에 어떤 여인의 사진과 위패가 있다.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태현.

법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햇빛이 안으로 쏟아지며 스님이 들어온다.

스님 누군지 알제?
태현

스님은 영정사진과 하얀 상자를 여인의 위패 옆에다 놓고
“나무관세음보살~”

태현 절을 올리는데 바닥에 눈물이 떨어진다.

#19. 산자락 / 오후

눈을 지그시 감고 염주를 돌리는 스님. 분골을 뿌리는 태현.
장흥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앉은 두 사람.

스님 (마을을 내려다보며) 기억나느냐?
태현 느낌만.....
스님 하긴, 너무 어렸으니.....
태현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스님 들은 얘기는 없느냐?
태현 이곳이 그림다는 말씀만~
스님 참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과거로 넘어감)

자막 : 1973년 진주의 남강 강변

#20. 들판 / 여름, 낮

푸른 하늘이 화면에 가득하고 십대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화면에 두 마리의 소가 머리를 맞대고 숨을 몰아쉬며 씩씩거리고 있다.

키 큰 차승원(18개)과 통통한 송강호(18세)가 소 옆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 주변에 10대의 소년들과 키 큰 긴 생머리의 한승숙(15세)과
작은 키에 단발머리인 백강숙(15세)이 둘러서서 구경중이다.

한승숙은 차승원을 백강숙은 송강호를 바라보며 흠모하는 표정을 짓는다.

소의 움직임에 따라 구경꾼들이 소리를 지른다.

승원 (큰소리) 밀어. 밀어. 밀어부쳐~

카메라 관중속의 승숙과 강숙 비춘다.

승숙 승원이 오빠 멋지제? 키도 흰~칠하고~

강숙 나는 승원이 해라. 나는 강호오빠가 데끼리다.

화면 다시 두 마리의 소를 비춘다.

강호 파고들어. 밀으로 밀으로~

잠시 후 강호의 소가 꿈무늬를 보이며 피하니 구경꾼의 환호성이 울린다.
승숙과 강숙이 두 소년에게 다가가고 구경꾼들 사라진다.

승숙 (승원 옆에 서서 부끄러워하며) 오빠, 축하드려예~

승원은 승숙을 외면하고 강호 옆에 서있는 강숙을 바라본다.

강숙 (강호를 보며) 내일은 오빠가 이길끼제?

강호는 대꾸 없이 승원이 옆에서 생글거리는 승숙을 바라본다.

빈터에 소 풀이 가득 쌓여있고

빈 리어카 두 대가 있는데 승원이 자신의 리어카에 소 풀을 옮겨 싣는다.

승원 (인상 찡그리고 있는 강호 보며) 고맙데이~ 하하하.

승원이 옆에 서 있는 승숙도 생글거린다.

장흥마을 전경이 한 화면에 나타난다.

자막 : 10년 후 여름.

#21. 마을회관 방 / 밤

방 중앙에 막걸리 주전자와 김치가 놓여 있고 키 큰 차승원과
통통한 송강호가 앉아있다.

청바지와 빨간 티를 입은 장발차림의 양아치 스타일 사내(중용스님, 28세)가 옷을
벗더니 캐비닛 속에 있는 승복으로 갈아입고 가발을 벗어 넣는다.

승원 절 안 지키고 또 어데 갔다 왔노?

스님 (앉으며) 어, 읍내 꽃 다방에 아가씨 새로 왔다 케가.....
강호 그 카지 말고 마 산에서 내려 온나.
스님 내라도 있어야 된다. 촌절에 올 스님도 없고,
그거는 그렇고 너그들 아직 정리 안됐제?
강호 (푸념하듯) 내가 좋다 카는 거는 승원이 좋다 카고,
승원이 좋다 카는 거는 내좋다 카는데 방법이 없다.
스님 (야릇한 미소) 그라며, 내가 해결 해주까?
둘 (눈 크게 뜨고 솔깃한 표정).....
스님 여자는 말이다~ (목소리 낮추며 속닥속닥).....

듣고 있는 두 남자 눈동자 커지고 얼굴에 생기 돌며 침을 꼴딱 삼킨다.

승원 그, 그라며 언제하꼬?
스님 말난 김에 (손으로 목 자르는 흉내) 해치아라.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말을 멈춘다.

#22. 승숙의 집

긴 생머리 승숙이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데 과마머리
강숙이 급하게 들어와 몸뻐를 벗으니 승숙이 멀뚱하게 쳐다본다.

강숙 (급한 듯) 가시나야, 빨리 안 벗고 머하노?
승숙 (눈 크게 뜨고 어리둥절)
강숙 (진지하게) 니, 승원이랑 살고 싶제?
승숙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 끄덕)

#23. 보리밭

승숙의 옷을 입은 강숙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고개를 돌리고 앉아있는데
강호가 두리번거리며 오더니 옆에 앉는다.

강호 느, 늦었제? 그, 그런데 수건은 와?
강숙
강호 (다가앉으며) 승, 승숙아~
강숙

갑자기 강호는 강숙을 쓰러트리며 달려드니,
쓰러진 강숙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

강호 (허둥대며 옷을 벗긴다) 이 방법 밖에는..... 미, 미안테이~

#24. 원두막

강숙의 옷을 입은 승숙이 수건을 쓰고 앉아있고,
옆에 승원이 앉아 있더니 달려든다.

승원 강, 강숙아~

화면이 좌우로 양분 되면서 두남자의 뒷모습과 그 아래 깔린
두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끼끌거리며 힘을 쓰는 두 남자와,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들의 뒷머리를 쓰다듬는 두 여자의 얼굴 클로즈업.

#25. 마을회관 방

앰프에 전원을 넣고 마이크를 쥐는 손.

양분된 화면 속에 변함없이 힘을 쓰는 두 남자와 황홀한 표정의 두 여자.

갑자기 마을 확성기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후~ 후~, 에~ 장흥마을 동민여러분~ 저는 자재암 중용이니더~
나무관세음보살~, 다름이 아이고 이 시각 현재 황씨 아저씨 원두막과,
진주댁 아주무이 보리밭에서 승원과 강호가 거사를 치루고 있심더~
그러까네 절대로 소문내면 안되니데이~
승원아~, 강호야~ 너그들 잘~하고 있제? 하하하. 나무관세음보살~

깜짝 놀란 승원과 강호, 그리고 승숙과 강숙.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남자는 눈동자 커지고 입을 벌리면서
기절초풍의 표정.

#26. 강숙의 집 마당 / 밤

시끌벅적한 잔칫집 마당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든다.

사람1 강숙이 고생이 많았는기라.

사람2 그케. 어린 나이에 부모 다 잃고 당숙 집에 언치가
부엌때기 한다꼬.....

사람3 그래도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잘 살끼다.

사람4 (술잔 내밀며) 자, 한잔 더 따라 바라.

#27. 강숙의 집 신방

동네 아낙들 손가락으로 창호지를 뚫고 들여다보니,
강호가 거푸 술잔을 들이키고 강숙은 심통 난 얼굴로 쳐다본다.

아낙1 강호 총각, 여자한테 사랑받는 기 좋은 거데이~ 호호호.

아낙2 맞다. 그래야 집안이 편한 기라.

아낙3 그란데 퍼떡 안하고 머하노? 첨도 아니면서~ 호호호.

강숙이 병풍으로 문을 가리고 옷을 벗더니 강호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긴다.

잠시 후,
신방 밖으로 강호의 “으악~”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시간경과)

#28. 들판 / 낮

배가 불룩한 강숙이 강호와 함께 들판을 가다가 승원과 승숙을 마주친다.

두 남자 서로 상대의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니 두 여자가 꼬집는다.

지나쳐서가다 두 남자 다시 뒤돌아 보다 또 꼬집힌다.

자막 : 1990년 진주.

#29. 마을회관 방 / 봄, 낮

승원과 강호(35세) 그리고 스님(35세)이 앉아있고,
정아(6세, 강호의 딸)와 태현(4세, 승원의 아들)가 과자 먹으며 놀고 있다.

스님 느그들 어떻노?
강호 (정아 바라보더니) 알라 놓고 살다보이 개안타.
스님 (승원 보며) 니는?
승원 나도 개안타.
 그런데 우리 태현이 강호 저누마 안 닳았나?
스님 (심각하게 번갈아 보더니) 어, 꼭 뺨 닳았네.
 정아는 니 닳은 것 같고. 하하하

세 남자 호탕하게 웃다가 멈춘다.

스님 참, 너그들 요새도 소싸움 하나?
승원 심심할 때 소풀 따 목기 한 번씩 한다.
 명절에는 돼지내기 하고..... 그런데 와?
스님 가을에 전국대회가 있다 카더라. 함 해봐라.
 상금도 크고.....
강호 쟁쟁한 소들이 다 올긴데.....
스님 와봐야 너그들 만한 사람이 어딴노.
승원 그거는 그럴 끼다. 우리는 눈빛만 딱 봐도 안다 아이가.
스님 바로 그기다. 그기 제일 중요한기라. 그러까네 함 해봐라.
 너그 두키 중에서 챔피언 나올지도 모린다.
둘 챔피언?
스님 그래, 챔피언. 농사꾼 차승원 송강호가 아이고,
 챔피언을 길러낸 차승원, 송강호 선생님이 되는 기다.
 얼마나 멋지노!
둘 (동시에 혼잣말) 선생님.....

승원과 강호는 상상에 빠진다.

챔피언이라고 쓰인 가운을 걸친 소위에 앉아서 손을 흔드는 모습.
눈 아래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

상상에서 깨어난 승원과 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표정이 결연해 진다.

#30. 강호의 집 마당 / 저녁

소를 살펴보는 강호의 얼굴이 밝다.

강호 (혼잣말) 니는 생긴 기 딱 챔피언 감이데이~
노고지리 뿔에 모가지 굵고, 앞다리 사이가 널버가
대가리 디밀고 있으며 아무도 못 당할 끼다.

현관문이 열리고 강숙이 얼굴을 내민다.

#31. 안방

등굴레 밥상에 강호내외 앉고, 정아는 아랫목에 잔다.

강숙 속세가 마이 그리번 갑다. 자주 오시는 거 보이.
강호 와 안 그렇겠노. 되고 싶어 된 거도 아이고,
조실부모 되가 동자승 됐으이.....
강숙 그래도 당신하고 승원씨는 다행인기라.
손주들까지 안아보고 돌아가셨으이.....
강호 그래도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거 같아가 마음이 그렇다.
강숙 그거는 그렇고 해볼라 카는교?
강호 함 해봐야지. 소를 내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더나?
강숙 승원씨 있다 아잉교.
강호 그누마 소는 힘이 좀 딸린다. 기술이 암만 좋다케도
진득~하게 힘으로 밀어 붙이면 못 당하는 기라.
내가 이겨가 선생님 될 끼다. 하하하.
강숙 (고개 갸웃) 서, 선생님?
강호 그런 거 있다. 선생님. 하하하.

#32. 승원의 집 마당 / 아침

승원이 소의 뒤에 타이어를 연결하고 아내 승숙과 태현이 지켜본다.

승숙 자신 있어예?
승원 있찌러.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인기라. 대가리를 딱
들이대가 눈치 봐가메 (흥내 내며) 요래, 요래.....

승숙 (크게 웃는다) 호호호.

승원 그리고 내가 그누마 한테 땃는 소풀을 모으면 태산보다
높을 끼구마는. 하하하.

#33. 들판 농로 / 낮

승원의 소는 타이어를 끌고 강호의 소는 달리기를 하는데
들판 농로에서 마주친다.

강호 (승원의 소를 살피며) 힘이 좀 딸리제?

승원 아이다. 좋다~

강호 벌써로 주디 별리가 침 질질 흘리는 거 보이
딸리는 갑구마는~

승원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

너그 소는 기술을 좀 갈চে야 될 끼다.

강호 안 그래도 갈치고 있다.

승원 아무튼 제대로 맨들어가 함 붙어보제이~

강호 오~야. 그라자.

#34. 산길 / 낮

승원은 소를 끌고 산을 뛰어 오르고 있다.

#35. 산 / 낮

강호는 소나무에 머리를 박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강호 처라. 처라~ 그렇치. 그래. 그래~

(시간경과 - 늦가을)

#36. 소 싸움장 / 진주 남강 둔치, 낮

소싸움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고,
둔치에 나무 울타리로 조성된 소싸움장이 화면에 들어온다.

소싸움장이 보이는 국도변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더니,
선글라스 낀 뚱뚱한 도끼(38세)와 바짝 마른사내 뽕치(35세)가
차에서 내려 멀리 경기장을 바라본다.

도끼 (용각산 가루 퍼먹고는) 전 가베?
꽁치 예. 형님.
도끼 쓸 만한 소 있더나?

#37. 강호 집 마당 / 낮

마당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는 강숙과 옆에서 놀고 있는 정아.
집안으로 들어오는 강호.

강호 태현이 집에 함 가바라. 또 쓰러졌다 카더라.
강숙 (걱정스런 표정).....

#38. 남강변 / 낮

승원과 강호가 독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두 마리의 소는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다.

강호 어떻노?
승원 그때 그카고는 잘 묵고 잘 자더라.
농사일이 힘들어서 그런갑다.
강호 그래도 모르까네 병원에 함 가바라.
승원 (미소 지으며) 첫사랑이라 신경 쓰이나? 하하하.
강호 시끄럽다 마 문디 새끼야. 하하하.
승원 가마보이 우리도 참 인연인기라. 글체?
강호 찌지고 뽕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 여서 붙어 살제이~
승원 갈라케도 갈 때도 없다. 배운 거도 없고 돈도 없고.....
강호 참, 아까보이 농협 직원이 왔다가던데 돈 돌려카더나?
승원 냉해 입어가 종자 값도 못 건짓는데.....
강호 나도 다음 달에 만긴데 큰일이데이~
승원 마, 우예 안되겄나. 걱정 한다꼬 해결 될 꺼도 아이고~

#39. 승원의 집 안방 / 오후

승숙이 쓰러져 있고 정아가 울고 있다.

정아 엄마, 엄마~~

#40. 진주병원 원장실 / 진주, 오후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비쳐보고 있고
그 앞에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승원.

의사 음. 뇌종양입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41. 트럭 안 / 오후

무표정하게 운전하는 승원. 힘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승숙.

승숙 선생님이?

승원 (머뭇거리며) 비, 빈혈이라 카네. 잘~ 챙기 미기란다.

승숙 (혼잣말) 빈혈.....

승숙은 하품을 하더니 잠이 들고 운전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승원.

#42. 승원의 집 안방 / 밤

승숙 누워있고 머리맡에 강숙이 앉아서 정아와 태현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정아가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입에 넣어준다.

해 맑은 얼굴로 노는 두 아이.....

강숙 조נם들 노는 기 친 오누이 같제?

승숙 (미소 지으며 고개 끄떡).....

강숙 (손잡으며) 곰탕 끼리 났으이 챙기 무레이~.

승숙 말라꼬 그라노. 번거롭고로~

강숙 시끄럽다마. 잘 안 묵고 깨작 거리 까네 그런 기라.
부지러이 무라.

승숙 (눈물짓더니) 엄마 보고 싶다.

강숙 외동딸 버리뿌고 도망간 엄마가 머가 보고 싶노?

승숙 그래도 엄마니까.....(눈물짓는다)

#43. 장흥마을 구관장 마당 평상 / 밤

고개 숙이고 있는 승원, 담배연기를 내뿜는 강호.

강호 수술비가 한두 폰이 아일 낀데, 니나 내나 형편이.....
승원 (술잔 들이키고) 집에는 카지 말거라.
강호 (고개 끄덕) 열흘 뒤에 챔피언 무면 해결 되지 싶구마는~

#44. 자재암 승방 / 낮

사찰주변의 풍경들이 화면이 비쳐지고 부속 건물들이 나타난다.
스님과 강호가 찻잔을 마주하고 앉아있는데 심각한 얼굴이다.

스님 우짜다가 그런 병이.....
강호 그러까네 내가 센 놈들하고 붙어야 된다.
스님 음. 함 알아 보꾸마.
강호 그라고 그누마 자존심 샌거 알제?
스님 알엇다. 암소리 안 하꾸마.

#45. 강호집의 마당 / 아침

강호가 스프레이로 소의 등에 번개라고 쓰고 있고,
강숙과 정아는 지켜보고 있다.

차에 싣기 위해 트럭의 뒷문을 따는데 마당으로 승원이 들어온다.

승원 별씨로 갈라꼬?
강호 어, 읍내 일도 좀보고, 니는 우알라꼬?
승원 저녁답에 가지머.

강숙이 다가오며 목례를 하고 정아가 꾸벅 인사를 하니
어색하게 잠깐 바라보다가 정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강호 니는 이름 머라꼬 지가 났노?
승원 나는 천둥이라고 짓다. 하하하.
강호 잘 되겠제?.
승원 우리 만큼 마이 싸워본 놈은 없을 끼구마는.....
강호 소풀 따 목기하고 같은 줄 아나?
승원 그래도 서로 통한다 아이가.

승원은 소를 차에 싣는 것을 거들어 주고, 집을 나선다.

강호 점마저거 당신 보는 눈빛이 애닭 던데?
강숙 당신도 승숙 볼 때 그렇거든요~. 호호호.
강호 나는 아이다.
강숙 참말이제?
강호 참말이고말고.
강숙 총각 때는 승숙같이 암전한 여자가 좋다 케놓고는.....
강호 그거는 그때고..... 아무튼 당신이 씹씹하고 건강해가
 얼매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아 안으며) 요래 이쁜 딸레미도 낳아주고.... 하하하.

#46. 둔치 싸움소 대기 장소 / 낮

각지에서 소를 싣고 온 트럭들이 모여 있다.

소를 내리는 사람, 여물을 주는 사람, 군데군데 모여이야기 하는 사람.
손수레를 끌며 커피를 파는 여인.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쬔 사람들.....

(시간경과 - 저녁 무렵)

소들이 말뚝에 매여져 여물을 먹거나 되새김질 하고 있다.
강호가 두리번거리다가 승원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고 만난다.

승원 자리 잡았나?
강호 어, 저쪽에.....
승원 둘러보이 아무진 놈도 제법 비네.
강호 그래도 우리 번개한테는 안 될 끼다. 하하하.
승원 대진표 보이 조가 틀려서 다행이다.
강호 와? 번개가 무섭나?
승원 그기 아이고 니가 내 만나가 대번에 떨어지까 싶어서.....
하하하.
강호 사돈요, 남말 하지 말고 국밥이나 무료 가입시더~ 하하하.

떨어지는 승원과 강호를 보는 두 사람 도끼와 콩치.

도끼 (가루약을 퍼 먹고) 저 양반들이가?

뽕치 예. 최고라 했심더. 소도 좋고예.

#47. 승숙집 안방 / 저녁

두 여자 누워있고 태현은 정아의 팔베개를 하고 둘이 잠들어있다.

승숙 그런데 언제 끝난다 카더노?
강숙 결승까지 올라가면 한 일주일 걸린다 카더라.
승숙 느그집 번개가 일등 할끼다 카던데.....
강숙 강호씨는 천둥이가 챔피언 된다 카더마는.....
승숙 서로 챔피언 되가 선생님 된다카디 갑자기 웬일이고?
강숙 그케 말이다. 호호호.
승숙 혹시 우리 천둥이가 일등하면 뚝 띠가 한몫 챙기 주꾸마.
강숙 오야~. 나도 그랄끼까네 니도 약속 지키레이~ 호호호.

#48. 진주시내 버스 정류장 / 낮

버스에서 승숙과 태현, 강숙과 정아가 내려서 걸어가고 있다.

승용차 안에서 지켜보던 도끼와 뽕치가 서서히 뒤따르니
강숙일행 병원으로 간다.

#49. 진주병원 원장실 / 낮

도끼와 뽕치가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지나간다.

#50. 소싸움 경기장 / 낮

많은 관중들이 웅성거리고 출입구에 승원이가 천둥이의 고삐를 잡고 있다.
그 옆에서 강호는 승원의 어깨를 두드려 주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린다.

“지금부터 진주 소싸움대회 무제한급 첫 번째 시합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할 소는 장흥마을 차승원씨의 천둥이~”

관중들의 박수가 울려 퍼지고, 승원이 경기장 중앙에 선다.

관중석에서 사복을 입고 가발을 쓴 스님이 다방아가씨와 함께 손을 흔든다.

천둥이는 앞발을 모래 속에 깊이 박아 뒤로 파헤치니 모래가 흩뿌려진다.

사회자 다음은 대구에서 온 정길은씨의 적토마~

적토마가 빠른 걸음으로 입장하여 모래판에 머리를 박고 비비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니, 천둥이도 모래를 파헤치며 전의를 다진다.

소 주인들에 의해서 중앙으로 와서 머리 맞댄 두 마리의 소.
두 주인의 지시에 따라 소들이 밀고, 치고, 버티고 한다.

싸움도중 적토마가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니 승원은 더 소리를 지른다.
적토마가 도망을 가니 기빠서 날뛰는 승원과 강호.

합성을 지르는 관중 속에 도끼와 쏜치가 도박꾼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속닥인다.

승원이 천둥이를 몰고 출구로 나가니 강호가 다가와 쓰다듬어 준다.

강호 기술이 역수로 좋아졌네!

승원 (머리 쓰다듬으며) 훈련 마이 했다 아이가. 하하하.

#51. 경기장 / 낮

화면에 승원과 강호의 소가 이겨가는 모습이 흘러간다.

기빠하는 승원과 강호. 그리고 다방아가씨와 중용스님.

관중석에서 도박꾼들과 유심히 지켜보는 도끼와 쏜치.

#52. 둔치 싸움소 대기 장소 / 오후

소를 보살피고 있는 승원.

쏜치가 다가가 뭐라고 말을 한다.

#53. 다방 / 오후

쏜치와 승원이 다방에 들어가니 도끼가 앉아있다.

승원 용건이 뭐요?
도끼 판기 아이고, 돈은 많고 쓸 때가 없는 사람들이
내기를 하자 케사서.....
승원
도끼 (노란 약봉지 내 놓으며) 하루 전에 상대 소한테 이거
미기면 (설사흥내) 좌라락.....
승원 (일어서서 나가며) 사람 잘못 봤심더.
도끼 부인 살리기 싫은 가베요?
승원 (멈칫하며) 당, 당신들 도대체?
도끼 협조만 되면 상금의 두 배를 더 얹어 드리것심더~
돈도 벌고 부인도 살리고~

#54. 둔치 싸움소 대기 장소 / 저녁

승원과 강호가 여물을 쭈며 이야기를 한다.

강호 내가 알아서 할끼까네 집에 갔다가 아침에 온나.
승원 혼자서 개안쨌나?
강호 쪼매있다 중용이도 올라쨌다.
승원 그, 그라며 집에 가보고 다시 오던동 하꾸마.

화면에 둔치의 풍경들이 비쳐진다.

강호와 사복차림의 스님이 소죽통을 들고 가서 천둥이에게 준다.

강호 마이 묵고 내일 이기레이~
중용 번개는 안 미기나?
강호 천둥이가 이길 것 같은데 흑시나 해서~
중용 천둥이가 잘하기는 잘하더라.

#55. 승원의 집 마당 / 밤

강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늘고 있는데 승원이 들어온다.

승원 집사람 때문에 고생이.....
강숙 벨소리 다하니더~, 여 일은 신경 쓰지 마이소.
승원
강숙 우야던동 이기가 챔피언 되이소.

승숙이 한몫 떤다카이~. 호호호.

승원

강숙 저녁 차리 났니더~. 펄떡 드가이소.

승숙 보면 눈 흘기니더~. 호호호.

#56. 방안 / 밤

승숙이 방에 누워있다.

승원 좀 어떠노?

승숙 개안아예.

승원 (두리번거리며) 태, 태현이는?

승숙 강숙이 저거 집에 재운다꼬..... 오늘 자고 가면 안돼예?

승원 갑자기 와?

승숙 오늘은 꼭 당신 옆에서 자고 싶네예.

#57. 둔치 싸움소 대기 장소 / 밤

어두운 그림자가 어느 소의 여물통에 약을 타고 사라진다.

노란 봉투는 구겨서 버린다.

#58. 둔치 싸움소 대기 장소 / 아침

강호가 대기 중인 소들을 살펴보며 걷다가 노란 종이를 발견하고

고개를 가웃하며 주머니에 넣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천둥이를 살핀 스님이 급히 온다.

중용 천둥이가 죽을 잘 안 묵는다.

강호 (걱정스런 표정)

승원의 소 앞에 온 두 사람은 소를 살펴본다.

중용 싸운다꼬 디가 그런강?

강호 히바리가 쪼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용 그래도 야는 저녁 묵었으이 번개 보다는 안 낫겄나?

강호

스님이 승원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흔든다.

#59. 국밥집 / 아침

승원과 강호는 국밥을 맛나게 먹는 스님을 바라본다.

승원 그리 맛있나?
스님 니도 삼시 새끼 풀만 무 봐라. 맛이 있는강 없는강.
 그라고 괴기도 좀 무 주야 힘을 쓰는 기다.
승원 니가 힘쓸 때가 어딴다꼬?
스님 불경 외우는 기 얼마나 중노동인줄 아나?
강호 내가 보기에 다방아가씨들 이름을 더 잘 외우지
 싶구마는~ 하하하.
승원 쫓쫓쫓. 출가한 스님이 그리 정이 많아가 우짜노?
스님 그기다 보시라는 기다.
 (자세를 잡으며) 나무관세음 보살. 하하하.

승원과 강호가 웃고 나더니 강호가 주머니에서 노란 종이를 꺼내어 메모를 한다.

강호 (혼잣말) 음료수, 과자, 커피.....
승원 (멈칫 하더니) 머, 머하노?
강호 어, 장봐가 오라 카더라.
 너그 식구들하고 잔치 한다꼬.....

강호가 종이를 윗주머니에 넣는다.

(회상화면 삽입 : 도끼가 내밀던 노란봉투화면)

#60. 소싸움 경기장 / 낮

결승전을 알리는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두 마리의 소가 입장한다.

처절할 혈투 한 시간째. 관중들은 소의 움직임에 따라 환호성을 지른다.
목이 터져라 지시하는 두 소의 주인.
몇 차례 힘을 쓰다가 설사를 해버리는 천둥이.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더니 다리를 후들거린다.

강호의 주머니에 있던 노란 종이가 모래바닥에 떨어진다.

승원이 그것을 보는 순간 “와~” 하는 함성이 들리고 천둥이가 도망친다.

번개의 승리를 알리는 마이크 소리.
승원이 종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다.

관중석에서 좋아라 하는 도끼와 뽕치의 표정 클로즈업.

황당한 표정의 스님과 강호.

소를 끌고 가다가 승원과 도끼가 얼굴을 마주친다.
음흉한 미소를 보내는 도끼와 뽕치.

#61. 장흥 마을 입구 / 오후

소가 실린 두 대의 트럭이 빗속을 달려 마을 입구에서 차례대로 선다.

승원이 차에서 내려 걸어오자 강호가 차에서 내린다.
승원이 주먹으로 치니 흙탕물에 쓰러진 강호는 입가에 피가 난다.

강호 와, 와이카노?
승원 니, 내 친구 강호 맞나?
강호

승원이 강호를 일으켜 먹살을 잡고 흔든다.

승원 말해라. 새끼야! 말하라고~

다시 강호를 치는 승원. 주먹질을 하며 절규를 한다.

승원 내 친구 강호 맞나 안 카나? 새끼야~

한참을 때리던 승원은 노란 종이를 꺼내어 쓰러진 강호에게 던지고
차를 몰고 가버린다.

종이를 주워 쳐다보는 강호.

#62. 장흥 마을 / 비 내리는 밤

깜깜한 밤 장흥 마을의 풍경이 보이더니 승원의 집에 불이 켜진다.

승원 여, 여보. 여보~

#63. 종합병원 수술실 / 밤

승원과 강호, 승복을 입은 스님.

그리고 태현을 등에 업고 정아의 손을 잡고 있는 강숙.

강호의 얼굴은 멍과 핏자국이 있고, 스님은 염주를 돌리고 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자 뛰어나는 사람들.

의사 급성이라.....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승원은 절규하고, 사람들은 주저앉아 울고 스님은 “나무관세음보살~”

#64. 장흥 마을 골목 / 낮

승원이 트럭에 살림을 싣고 있다.

스님은 먼산을 바라보고,

강호는 속상한 듯 인상을 쓰며 담배를 피우고 있고,

강숙은 태현을 안고 있다.

정아는 팔을 들어 태현의 발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서 있다.

짐을 다 실은 승원이 강숙에게 다가오니,

강숙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지가 키우고 싶심더~

승원은 강숙의 말에 대꾸도 없이 태현을 받아 안고 몸을 돌리는데
태현이 버둥댄다.

태현 양, 양~ 누나, 누나~~

정아가 자신이 하고 있던 빨간 털목도리를 벗으니
승원이 태현을 바닥에 내려준다.

정아가 목도리를 태현의 목에 둘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태현은 울먹울먹~~ 승원이 태현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에 오른다.

강호 (담배를 끄고 다가가) 승원아? 니가 와 이카는지.....
승원 (말을 끊는다) 됐다마~ 잘 살어라.

승원의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남은 사람들이 물끄러미 바라본다.
눈물 닦는 강숙. 눈을 감는 스님.

(시간경과)

#65. 경기장 / 낮

강호가 대회에 나가서 이겨가는 장면들이 흘러간다.

챔피언 가운을 걸친 소를 타고 사진을 찍는 모습.
“19승 무패의 싸움소 강호 결승진출” 라는 신문기사 클로즈업 된다.

#66. 둔치 근처 / 저녁

도끼와 강호가 둔치에 서있다.

도끼 (가루약을 퍼 먹고) 이선생, 내하고 거래 함 하시더~
강호
도끼 도박꾼들이 전부 이선생 한테 걸었는데.....
 한번 저 주소. 그래만 해주면 상금의 3배를 얹어
 드리겟소. 타이틀 보다 돈이 더 좋지 않겟소?
강호 3배?
도끼 (노란봉투를 내밀며) 예. 3배. 이거만 미기주소.
 이거만 미기면 (설사홍내) 좌라락~

강호가 승원의 절규하던 모습을 회상한다.

#67. 싸움소 대기장 / 밤

싸움소들이 있는 공터에 어두운 그림자가 걸음을 멈추고
술뚜껑을 여는 손이 보인다.

#68. 경기장 / 낮

번개가 결승을 하는 모습.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상대방의 소.

관중석에서 소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도끼와 쫑치.

상대 소가 설사하며 도망을 간다.
강호의 소가 승리하여 관중들의 환호성 터짐.
소를 끌고 나오며 관중석에 있는 도끼를 보며 미소를 짓는 강호.
분한 표정을 지으며 어금니를 깨무는 도끼와 쫑치.

#69. 식당 / 저녁

중용 (놀라는 표정) 그, 그런 일이.....
강호 (돈 봉투) 혹시 모르니 이거 가지고 있다가
승원이 찾으면.....
중용 (걱정스런 말투) 그, 그놈들이 가만있겠나?

(회상에서 깨어남)

(#19에서 이어짐)

#70. 산자락 /오후

스님과 태현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본다.

태현 그 후로 말을?
스님 불이 난후에 그전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까지.....
태현 그럼 그 도끼라는 사람이 불을?
스님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날 밤에 살아나온 건 정아와 번개뿐이었으니.....
태현 그럼 우사에 있는 소가?
스님 번개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그 새끼란다.
강호 내외가 그렇게 가고 난후에 정아가 소에게
의지를 많이 했지. 친구삼아 같이 놀기도 하고~
태현 흙터가 많아 보이던데.....
스님 싸움소들 연습상대를 해주고 있지.
태현 연습?
스님 체형은 딱 싸움소인데 정아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다 보니 겁이 많아. 그래서 싸움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소에게 자신감을 길러줄려고 한번씩.....
태현 (고개 끄덕).....
스님 (일어서며) 그만 가자꾸나.

#71. 자재암 대웅전 /오후

정아가 앨범 속에 있는 사진을 들고 와서 차승원의 영정사진과 번갈아 본다.

#72. 승방 / 밤

부엌 딸린 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스님과 태현이 잠자리에 들었다.
몸을 뒤척이는 태현.

스님 아버지를 보니 고생이 많았던 것 같던데?
태현 평생 막노동 하시면서 늘 그리워 하셨습니다.
폭음 하시다 간암에 걸리시고.....
스님 쫓쫓쫓. 너도 힘들게 살았겠구나.
태현
스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49재 마치면.....
태현

#73. 자재암 / 아침

태현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스님은 염불을 윈다.

정아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

소는 우사에서 여물을 먹고 있다.

#74. 마루 / 오전

스님과 태현이 차를 마시고 정아는 수돗가에서 빨래를 한다.

스님 함께 살게 되었으니 지난날 잊고 즐겁게 지내려무나.
 소일삼아 텃밭하고 소 돌보는 일을 거들고.....
태현 예.

정아가 태현을 보며 빨랫감을 내 놓으라고 시늉을 하니
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빨랫감을 가져와 내려놓는다.

정아가 태현의 팬티를 들어 보이더니 미소를 짓자 태현은 부끄러워한다.

정아가 빨간 목도리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사진을 들고 나온다.

빨간 목도리를 하고 소위에 앉아 있는 정아의 사진.

정아는 자기 것이라는 시늉을 한다.
태현은 고개를 끄덕여 주고 마루에 오른다.

스님 오래 가지고 있었구나!
 니가 떠나던 날 정아가 준 것인데.....
태현 예. 안고 자면 잠이 잘 왔습니다.
스님 오누이처럼 다정했는데 정아는 기억을 잃고,
 너는 어렸으니.....

카메라가 빨래하는 정아의 모습을 비춘다.

자재암 마당의 빨랫줄에 늘린 옷들이 바람에 살랑인다.
빨간 목도리도.....

#75. 텃밭 / 낮

큰 밤나무가 있는 텃밭에 스님과 태현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
그 곁에 소가 묶여있고 되새김질을 한다.

정아가 대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오고 있다.
밤나무 그늘에 새참을 차린 정아가 손짓으로 부른다.

스님이 앉고 태현이 앉는데 정아가 밤송이를 엉덩이 밑에 넣는다.

태현 (공중으로 튀어 오르며) 아얏~~

밤송이가 엉덩이에 붙어있다.
스님과 정아는 웃음보가 터진다.

태현은 밤송이를 떼어내고 정아를 흘겨보더니 함께 웃는다.

카메라 맑은 하늘을 비춘다.
스님이 잔을 들더니 주전자를 태현에게 건넨다.

스님 한잔 따러 보거라.
태현 (고개 가웃).....
스님 이놈아 팔 떨어질따~ 하하하.

태현과 정아가 다시 웃는다.

(시간경과)

#76. 승방 / 밤

잠자리에 든 스님과 태현.

스님 이곳에 온지 얼마나 되었느냐?
태현 열흘쯤.....
스님 지낼 만큼 하고?
태현 예.
스님 조용한 절간에 니가 있으니 웃을 일도 있고 좋구나.
태현

#77. 진주시장 / 낮

시끌벅적한 시장 풍경.

난전 상인들이 즐비한 곳에 태현과 정아가 돛자리를 펴고 앉아있다.

말린 나물들과 고구마 등등.....

손님과 흥정하는 정아를 멀뚱히 바라본다.

저 멀리서 경찰이 다가오니 태현이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정리하는 체한다.

정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78. 옷가게 / 낮

정아가 옷옷을 들어 태현의 몸에 대어 보더니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남자 팬티를 몇 장 더 사서 봉지에 담는다. 태현은 멀뚱한 표정~

정아의 짐을 받아들고 정아 뒤를 따르는 태현.

#79. 진주 추어탕 식당 안 / 낮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그들 앞에 추어탕이 놓인다. 정아가 먹으라는 시늉~

태현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어~ 맛있네!

태현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아는 미소를 짓는다.

#80. 트럭 안

정아가 운전을 하고 태현이 조수석 앉아있다.

태현이 창밖을 살펴보다가 “진주 소싸움 대회” 플래카드를 본다.

읍내를 벗어나 국도 길을 달리는데 햇살이 운전석으로 들어온다.

태현이 정아의 옆모습을 가만히 살펴본다. 둘이 눈이 마주치자 미소 짓는다.

#81. 우사 / 저녁

태현이 소에게 먹이를 주고는 쳐다본다.

태현 겹쟁이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며?

나하고 똑 같구나. 나하고.....

#82. 승방과 정아 방 / 밤

화면 양분되며 정아와 태현이 차안에서 눈이 마주쳤던 모습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는다.

#83. 방 / 아침

아침 식사를 마칠 즈음 태현이 눈치를 살피더니,

태현 저, 스님? 소싸움 대회가 있던데 (밖으로 고갯짓을 한다)
스님 왜? 해보고 싶나?
태현 스님이 체형은 타고 났다고.....
스님 그렇긴 한데 겁이 많아서.....
태현 담력을 길러주면.....
 평생 겁쟁이로 살았다는데 한번이라도.....

스님이 정아를 쳐다보니 정아는 태현 얼굴을 보며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다.

#84. 자재암 가는 길 / 오후

스님과 태현이 농기구를 들고 오르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아의 트럭이 내려온다.

두 사람 앞에 멈춰선 정아가 태현에게 타라는 시늉을 하니 스님을 바라본다.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85. 진주시장 / 저녁

두 사람이 시장을 다니며 찬거리를 산다. 길거리에서 오뎅을 사먹으며 웃는 두 사람.....

#86. 진주시내 / 저녁

정아가 카센터에서 헌 타이어를 트럭에 싣고 있고,
태현은 도로변에서 공중전화를 한다.
태현이 전화를 끊으니 정아가 멀리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

정아가 휴대폰을 꺼내어 주니 태현이 괜찮다는 시늉을 한다.

두 사람 차에 타고 정아가 손짓으로 어디에 전화했냐는 시늉을 한다.

태현 어.. 치...친구.

정아가 왼손가락을 내어 보이며 여자냐고 묻는 시늉을 하니 고갯짓을 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정아.

운전하는 정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태현.

고개 돌리며 미소를 짓더니 밥 먹고 갈래? 라는 시늉을 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87. 서울 유흥가 / 저녁

똥마니(23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집 광고지를 돌리고 있다.

화면에 두명의 사내(깡패)가 똥마니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보인다.

똥마니가 이들을 보자 광고지를 집어 던지고 골목길로 도망간다.

명에게 쫓겨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버티고 있는 또 다른 한명의 깡패.
두려워하는 똥마니에게 다가온 깡패가 주먹을 날리고 두드려 맞는다.

깡패가 입가에 피 흘리는 똥마니의 머리채를 쥐고 손을 내민다.
똥마니 주저 하더니 휴대폰을 꺼내어 주니 폴더를 열어서
다른 놈에게 보여주며,

깡패1 여가 어디고?

#88. 중국집 / 저녁

태현과 정아 식탁에 앉아 있는데 자장면이 놓여진다.
태현이 자장을 비비더니 정아에게 준다.
두 사람 눈이 마주치니 둘 다 미소 짓는다.

정아가 먹으라는 시늉을 하자 태현이 터프하게 먹는데 입가에 자장이 묻고,

미소 지으며 바라보던 정아가 휴지로 닦아준다.

#89. 자재암 / 낮

정아와 태현이 타이어를 연결하고 소를 끌고 나가니
스님은 야릇한 미소를 짓는다.

#90. 승방 / 낮

스님이 태현의 배낭을 뒤지다가 미소를 짓는다.

#91. 산길 / 낮

소고삐를 쥐고 끄는 태현과 그 뒤를 따르는 정아.

태현이 멈추어 서더니 정아에게 타이어 위에 올라타라는 시늉을 한다.

정아는 고개를 가웃하며 올라타고.....

태현이 소를 끌자 정아는 웃으며 즐거워한다.

바람이 정아의 긴 머리를 날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현도 미소를 짓는다.

타이어가 돌부리에 걸려 정아가 떨어진단다.
정아가 옷을 털며 일어나더니 췌려본다.

태현은 웃다가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정아 앞으로 다가온다.

정아가 태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으니
태현이 와락 정아를 안아서 소 등에 태운다.

소등에 탄 정아는 미소를 짓고 태현은 즐거워하며 소를 끈다.

#92. 다방 / 진주시내, 낮

물들인 장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가죽옷을 입고 요란한 장식을 한
옷을 입은 사내(스님)가 다방에 들어가니 다방아가씨 다가와 반긴다.

아가씨 어머 오빠, 스타일이 확 바깻네~

스 님 오빠 개안나?
아가씨 응. 너무 너무 멋져부러~ 호호호.
스 님 그, 그렇게?
 이기 서울에서 사온 긴데 보통 비싼 기 아이다.
아가씨 어쩐지 때깔이 다르더라. 암튼 (엄지손가락 세우며)
 오빠한테 딱이야~
스 님 기분이다. 한잔씩 돌리고~ (목소리 낮추며)
 바람 췌로 가까?

아가씨가 마담을 보니 고개를 끄덕한다.

#93. 읍내 골목

횃집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스님과 아가씨.

아가씨 오빠, 맛있게 잘 먹었데이~
스 님 오야~. 쫌득하니 맛있네.
아가씨 오빠, 이제 어디 갈끼고?
스 님 음주 걸릴라. 술도 께겘 저기 갔다가......

아가씨가 고개를 돌리니 모텔 간판이 보인다.

아가씨 차도 없으면서 무슨 음주? 그라고 벌건 대낮에 말이가?
스 님 사랑을 시간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기라.
 시도 때도 없이 베풀어야제.
 그기 다 보신기라. 보시. 하하하.

모텔 골목길로 걸어가는 두 사람.

두 사람을 지켜보는 세명의 사내(강패) 뒷모습.

강패1 맞제?
강패2 예. 옷을 보니......

모텔로 향하는 스님 앞에 나타난 강패. 뒤를 보니 거기에도 두명이 있다.

강패1. (다가오며) 오랫동안이다 헐랭이~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피해 가려는데 주먹이 날아온다.
주먹을 피하며 흠을 날리는 스님.

세 명이 달려들고 스님은 공중을 날고 땅을 구르며 이들과 맞선다.

아가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 가버리고.....

싸움 도중에 한 놈이 스님의 머리를 잡고 당겼는데 모자와 가발이 벗겨진다.
눈이 휘둥그레진 네놈은 스님의 얼굴을 보더니 황당한 표정을 짓는다.

스님 (머리를 만지며) 내, 내, 내 머리.....

스님이 주먹을 내지르며 달려드니 이들은 가발을 든 채 도망을 가버린다.
스님은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더니 머리를 쓰다듬는다.

#94. 뒷골목

강패 세 놈이 숨을 헐떡거리며 서 있다.

강패1 (강패2의 뒤통수를 치며) 아니잖아 임마.

강패2 옷은 맞는데 왜 중놈이.....

강패1 (잠시 생각더니) 진주 바닥에 있는 절은 다 뒤져봐.

강패들 예. 형님.

#95. 대웅전 / 오후

스님이 강호 내외의 영정을 바라보다 눈을 감고 “나무관세음보살~”
정아와 태현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96. 마당 / 오후

의자가 마당에 놓여있고 스님의 한손엔 가위가 들려있다.
우사 앞에 서있는 태현.

스님 일루와, 너도 절밥 먹고 있으니 반 중이나 똑같다.

태현 (싫은 표정) 스, 스님...

스님 (인상을 쓰며) 오레도.

투덜거리며 앉는 태현.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정아.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바리칸으로 미니 따갑다고 “아야~ 아야~” 비명 지른다.

빡빡이가 된 태현이 일어나니 정아가 수돗가에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

옷을 벗어라하니 태현은 망설이다가 벗는다.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

바가지로 물을 부어주니 한손은 바닥을 짚고 한손으로 비누칠을 한다.

정아가 한손으로 같이 비눗물을 씻어 내더니 물을 한바가지 퍼서 야릇한 미소를 짓다가 물을 등에 부어 버린다.

깜짝 놀란 태현은 비명을 지르고 스님과 정아는 함께 웃는다.

#97. 부엌 딸린 방 / 저녁

식사중인 세 사람. 태현이 젓가락을 들고 잠깐 멈칫하고 있다.

스님 입맛이 없느냐?

태현 아, 아닙니다. 좀 피곤한지~

스님 훈련시키느라 힘들 텐데 (정아 눈치를 보며) 절간이라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태현 괜찮습니다. (반찬을 먹으며) 나물 좋아합니다.

스님 소 이름은 지었느냐?

태현 (머리 굽적이며) 예. 허, 헐랭이~

스님 음. 헐랭이~ 싸움소 헐랭이~. 이거 좋은데~ 하하하.

태현이 정아를 바라보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98. 산중 / 오전

소나무에 머리를 박으며 연습중인 헐랭이.

태현은 그 옆에서 독려를 한다.

태현 그래 헐랭아~. 그렇게 하는 거야. 치고, 치고~ 좋아. 좋아~

#99. 자재암 / 오전

정아가 장바구니를 들고 트럭에서 내린다.

스님 맛난 거 좀 샀느냐?

정아가 장바구니를 뒤로 숨기며 고개를 흔들며 부엌으로 간다.

잠시 후.

태현이 헐랭이를 우사에 메어놓고 마당으로 걸어오니 정아가 대웅전 쪽을 살피며 태현에게로 가서 보따리를 건넨다.

태현이 말을 하려하자 손가락을 갖다 대며 고갯짓으로 밖으로 가라고 한다.

#100. 대웅전 / 낮

불경을 외우고 있는 스님.

눈감고 몇 소절 하더니 말문이 막혀 불경을 보고 다시 외우는데
중간 중간에 끊긴다.

스님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제보살 행심반야...
에헴~ 행심 행심 반야~ (다시 불경을 본다)

다시 독경을 하나 이내 막히자 한숨을 쉬더니

스님 음. 참선이나 해야겠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스님.

다시 후 코를 벌렁거리더니 고개를 돌리며 냄새를 맡는다.
눈을 뜨며 미소를 짓는 스님.

#101. 자재암 계곡 / 낮

가스버너에 고기를 굽고 있는 태현. 갖가지 야채와 마늘 쌈장 등이
주위에 늘어있다. 소주도 한 병 있고~

침을 꿀떡이며 고기를 뒤집다가 씹을 싸서 입에 넣는다.
그 순간 스님의 진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스님 네 이놈~

태현은 화들짝 놀라며 엉덩방아를 찢고 입 밖으로는 상추가 조금 나와 있다.

소리를 지르며 다가온 스님은 인상을 쓴다.

태현은 미안해하며 몸 둘 바를 모르는데~

스님 (불호령) 이놈아, 고기 탄다 고기~. 빨리 디비라. 빨리~

스님은 버너 앞에 앉아서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스님 (맛있는 표정) 아까번거 다 탈뿐 했네!

태현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스님이 소주잔을 들고,

스님 이놈아 뭐해?

태현이 망설이다 소주잔을 채워주니 한잔 마시고 난 스님.

스님 카~, (태현보며 근엄한 목소리)

정아한테는 비밀이다 알겠느냐? 하하하.

계곡 건너에서 정아가 숨어서 바라보다 미소를 짓는다.

#102. 자재암 / 낮

스님이 마당으로 들어오니 정아가 나가더니 점심 식사 준비하겠다고 한다.

스님 반야심경을 다 외우기 전까지는 금식할 것이니라.

태현이나 맥이거라. 꺼억~

스님은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며 대웅전으로 들어간다.

정아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으니 독경소리가 들리는데

술 취한 목소리다.

스님 마하~ 꺼억~ 마하반야 바라 꺼억~

#103. 부엌 딸린 방 / 밤

식사를 마친 세 사람. 태현 옆에 카세트가 있다.

스님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태현 혈렁이 최고 약점이 겁이니까~

스님 그래서 어디다 메 났느냐?

태현 마을 위 공동묘지에요.

스님 무서울 텐데~ (야릇한 미소 지으며)

 귀신 나올지도 모르고.....

태현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딴다고요.

스님 아니야~ 한 품고 죽은 처녀들도 그기에 묻혔는데~

태현 나오면 연애나 한번하자 할께요. 하하하.

스님은 여전히 야릇한 미소를 짓는다.

#104. 공동묘지 / 밤

하늘엔 달이 떠 있고 혈렁이는 말뚝에 메여져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

어둠속에서 자세를 낮추고 살펴보는 태현이 혼잣말을 한다.

태현 음. 겁이 안나는 모양이네. 되새김질 하는 거 보면.....

태현이 카세트의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어 흥~” 사자의 울음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다.

혈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위를 경계하며 두리번거린다.

태현 효과가 있구만. 그래 혈렁아, 두려움을 이겨야 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꺼야.

불륨을 더 높이는 태현. 혈렁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하얀 물체가 획~ 지나간다.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가웃하며.....

태현 뭐, 뭐지..... 잘, 잘못 봤나~

고개를 다시 돌리는데 귀신의 웃음소리와 함께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지나간다.

태현 동공 커지면서 숨이 멎으려는 듯 헉~ 헉~하며 산길을 달려 내려간다.

넘어지고 나무에 부딪치고 구르면서 울먹인다.

태현 귀,,, 귀,,, 귀신~ 어,, 어~ 사, 사람, 사람 살려~

귀신은 뒤를 따라오며 섬뜩한 웃음소리를 낸다.

#105. 자재암 / 밤

태현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 오더니 마당에서 정아를 보고 마음이 놓이는지 “귀신이~” 라는 말을 하며 기절을 한다.

정아는 미소를 짓는다.

#106. 승방 / 밤

소복 입은 스님의 등에 업혀 방에 눕혀진 태현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정아. 스님은 가발을 쓴 채 소복차림으로 앉아있다.

얼굴을 찡그리며 깨어난 태현이 스님을 보더니 놀라며 정아의 품안으로 들어간다. 정아는 미소 지으며 태현의 몸을 토닥토닥.

스님 하하하.

태현이 고개를 돌리니 스님은 가발을 벗는다.

태현 (원망 가득한 표정) 씨~ 스, 스님~~

스님 겹쟁이는 헐랭이가 아니고 니눔이구나. 하하하.

태현은 원망스런 표정을 짓고 정아는 미소를 짓는다.

#107. 승방 / 밤

잠자리에 든 두 사람.

태현 스님?

스님 왜?

태현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겁니까?

스님 마음 편한 게 제일이지 싶구나.

태현 (혼잣말) 마음......

태현이 정아의 미소짓는 얼굴을 떠올린다.

#108. 대웅전 / 새벽

태현이 부모의 영정 앞에 꿇어앉아 혼잣말을 한다.

태현 마음 편히 살게요. 마음 편히......

#109. 대웅전 뒤

태현이 결심한 표정으로 전화를 거니 누군가 받는다.

태현 저.. 차태현입니다. 예. 예.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

#110. 자재암 마당 / 오후

정아와 스님이 차에 오르고, 정아가 태현을 보며 미소 짓고..... 출발~

#111. 정아 방 / 오후

태현이 승방으로 가려다가 정아 방으로 들어가서 앨범을 꺼내어 본다.
미소를 짓더니 한 장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는다.

#112. 국도 / 오후

깜짝 3명이 탄 승용차가 국도변을 달리며 주위를 살핀다.
트럭과 교차 되면서 지나간다.

#113. 진주시내 / 오후

소싸움 대회 참가 신청서를 내는 정아와 스님.
장을 보는 장면들이 지나간다.

#114. 자재암 / 저녁

태현이 우사를 치우고 있는데 깡패들이 탄 차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태현이 우사에서 나와 이들과 마주친다.

깡패1 여기에 숨어 계셨구마이~

세 놈 중 한 놈이 승방의 문들을 열어보고 온다.
태현을 둘러싼 세 놈.

깡패2 아그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차 타지잉.....히히히.

두 놈이 다가오며 팔을 잡으려고 하자 태현이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을 한다.

넘어졌던 두 놈이 다시 덤비고~ 구경하던 깡패3이 칼을 꺼내어 합세한다.

태현이 난투 중에 칼에 팔이 찢려 난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태현을 차에 태우려고 할 때 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정아와 스님이 깜짝 놀라며 차에서 내린다.

스님 (기억이 난 듯) 네놈들은.....

깡패1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하하하.

깡패2 (칼을 빼들며) 이보슈 중님? 조용하게 삽시다. 잉?

정아가 스님을 보니 고개를 끄덕인다. 기를 모으는 자세를 하는 정아.

깡패3 저건 또 뭐여~?

깡패1 국민체조도 아니고~ 히히히.

정아가 준비가 되었는지 깡패들에게 다가가니 놈들은 고개 갸웃하며

빙 둘러싼다.

키득거리던 한 놈이 발차기에 맞는다. 쓰러졌던 놈 일어나고
두 놈 합세하여 정아에게 달려든다.

공중을 날고 땅을 구르며 깡패들을 패는 정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스님.
눈을 뚱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태현.

(시간경과)

목사발이 된 깡패들이 무릎 꿇고 팔 들고 있고 스님이 “요놈, 요놈” 하며
그들의 뒤통수를 때린다.

정아는 걱정스런 얼굴로 태현을 보살피고 있는데
한 대의 승용차가 들어오고 두 명의 사내(형사)가 내린다.

(시간경과)

세 놈의 깡패가 차에 태워져있고 마당 귀퉁이에서 형사와 태현이 이야기
하고 두 대의 승용차가 사라진다.

#115. 승방 / 밤

정아는 물수건으로 태현의 얼굴을 닦고 스님은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는다.

스님 조금 스쳤어 다행이다.

태현이 정아를 바라보며 싸움 흉내를 내니 미소 짓다 대야를 들고 나간다.

태현 그 무술이?

스님 선무도 라는 것이다.

태현 선무도?

스님 스님들에게 내려오는 무술이지.....

정아는 고수 중에 고수고.....

태현

스님 그리고 정아 이름으로 접수를 했다.
태현 예. 잘하셨습니다.
스님 근대, 형사하고 뭘 얘기 했느냐?
태현 대회 끝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밖에서 이야기를 듣는 정아의 표정이 어둡다.

#116. 들판 / 낮

두 마리의 소가 머리를 맞대고 있고 40대의 사내가 자신의 소에게 소리를 지른다.

사내 아래로, 아래로 파고들어..... 밀어, 밀어, 더, 더~

정아와 태현이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싸움을 중단 시킨다.

정아가 다가가서 왜 중단시키느냐고 시늉을 한다.

사내 (헐렁이를 가리키며) 이놈이 갑자기 왜이래?
 꿈무늬 뺄 때가 지났는데.....

정아와 태현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117. 트럭 안 / 낮

표정 밝은 두 사람.

태현 봤지?
정아 (고개 끄덕).....
태현 이제 겁쟁이가 아냐. 하하하.

정아는 미소를 짓는다.

#118. 산중 / 낮

정아가 소를 조련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지나간다.

산길을 달리고, 타이어를 끌고, 소나무에 머리를 박고~~

태현이 곁에서 지켜본다.

#119. 우사 / 낮

태현이 소의 뿔을 깔고 있고, 스님은 그 보습을 보고 있다.

스님 내일인데?
태현 예전의 헐렁이가 아닙니다.
스님 너도 예전의 차태현이 아니고~. 하하하.
태현 그놈들이 또 나타날까요?
스님 마약보다 더 한 게 도박이라 했으니~

#120. 진주시내 다방 / 낮

다방아가씨의 손을 잡고 시시덕거리는 도끼.

콩치는 현상수배자 전단지를 보더니 자리로 와서 앉는다.

아가씨 오빠, 수배자?
콩 치 내가 어디를 봐서 수배자 같냐? 형사다 형사. 히히히.
아가씨 형사 같진 않은데~ 호호호.
콩 치 (도끼를 보며) 김 형사님?
 이 가시나가 내말을 안 믿심더~ 히히히.
도 끼 (가루약을 털어 넣고) 나도 못 믿겠다 양아치 새끼야.
 하하하.
아가씨 (도끼 보며) 무슨 약이야?
콩 치 우리 형님이 목이 안 좋다. 히히히.
아가씨 김 형사님 아니고 형님이네~ 호호호.

#121. 자재암 대웅전 앞 계단 / 밤

초롱초롱한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쳐다보는 정아와 태현.
팔이 팬찮냐며 묻는 정아. 태현은 팬찮다는 몸짓.
서로 쳐다보다 눈 마주치면 어색해 하며 하늘 쳐다보는 두 사람.

(시간 경과)

정아가 그만 들어가서 자라는 시늉.

두 사람 일어나서 각자의 방으로 가는데 태현이 뒤에서 정아를 끌어안는다.

정아는 태현의 손을 쓰다듬고 잠시 후 태현이 팔을 푸니
정아가 뒤돌아서서 태현의 코를 쥐고 몇 번 흔들더니 미소를 짓는다.
머쓱해 하다 미소 짓는 태현.

#122. 승방 / 밤

태현이 누워서 정아의 미소를 떠올리며 행복한 표정 짓는다.

#123. 싸움소 대기장

싸움소 전용 경기장 인근의 공터.
트럭에서 내리는 소. 여물을 먹는 소. 커피 파는 여인 등등 분주한 모습.

혈랭이에게 여물을 먹이는 태현과 정아의 모습도 보인다.
도끼와 콩치가 어슬렁거리며 소들을 살펴보며 지나가다
혈랭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혼잣말을 한다.

도끼 생긴 건 딱이네~

정아와 태현이 멀어져가는 도끼와 콩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야릇한 미소를 짓는 태현.

(시간 경과)

#124. 경기장 / 오후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입장을 준비 중인 혈랭이.
정아가 고삐를 잡고 있고 태현이 파이팅을 외친다.

대형 스크린에 정아와 혈랭이의 모습이 보이고
스님은 관중석에서 손을 흔든다.

사회자의 음성이 들려온다.

“무제한급 다섯 번째 경기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 아니 소싸움대회 최초의 여성 조련사인 것 같습니다.
송정아씨의 혈렁이~”

관중들의 박수 속에 입장하여 모래판에 선 혈렁이와 정아.
혈렁이가 어색해 하니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달란다.

사회자 다음은 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김 경수씨의 차돌이~

박수 속에 입장한 차돌이가 입장하더니 모래를 파헤치며 위협하는 자세.

두 마리의 소가 머리를 맞대니 심판이 시작을 알린다.
뒤로 조금씩 밀리는 혈렁이.

정아가 손짓을 하며 인상을 쓰니 혈렁이가 힘을 낸다.
머리를 맞대고 대치하던 두 소.
정아가 혈렁이에게 손짓을 하니 혈렁이가 자세를 낮추어
차돌이의 머리 밑으로 파고들어 일격을 날린다.
도망가는 차돌이~ 관중들이 환호성이 울린다.

밝은 얼굴로 혈렁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정아.
관중석에서 가루약을 먹으며 바라보는 도끼와 쫑치.

#125. 싸움소 대기장

여물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정아와 스님.
태현은 등을 긁어주며 싱글벙글.

태현 보셨죠?
스님 오냐~ 지 애비처럼 잘하더구나.

#126. 경기장

경기가 거듭되면서 혈렁이가 이겨 나간다.
기뻐하는 세 사람.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는 도끼와 쫑치. 그리고 도박꾼 무리들~

화면에 신문기사가 클로즈업 된다.

“최초의 여성 조련사 송정아”

“연습소 출신 헐랭이의 질풍노도~”

“언어 장애를 뛰어 넘은 인간승리”

“헐랭이 드디어 결승진출, 싸움소의 전설 조자룡 나와라~”

#127. 다방 / 저녁

도끼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꽁치 형님, 이번에는?

도끼 헐랭인지 꺼병인지가 너무 세서 도박꾼들이 전부
 그쪽에다 거니 돈이 안될 것 같어~

꽁치 그럼 포깁니까요 형님?

도끼 (생각하는 듯) 글썄~

꽁치가 옆자리에 있는 신문을 흘깃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다
수배자 벽보를 본다.

자리로 돌아온 꽁치 흥분된 표정으로 신문을 도끼에게 들이댄다.

꽁치 혀, 형님?

도끼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128. 싸움소 대기장 / 저녁

꽁치가 차태현에게 뭐라 말하니 뒤를 따라가는 태현.

그 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정아와 스님.

#129. 한정식 식당 / 저녁

도끼가 힐끗 쳐다보더니 식사를 계속한다.

한동안 서있던 태현이 나가려고 하니 도끼가 손가락으로 식탁을 내려친다.

도끼 세상 참 좋다. 저런 마약 쟁이 새끼들이 활개를 다치고~

태현 (멈칫하며 뒤돌아선다) 그럼 신고하시죠?

 제모가지에 몇 백 걸려있으니.....

도끼 (가루약 먹고) 오호~ 배짱이 좀 있는 놈일세~ 하하하.
태현
도끼 너 같은 놈 넣어보이 내한테 덕 될까 머가 있겠노?
존기 존거라꼬 거래함 하지?
태현 원하는 기 뭘니까?
도끼 내일 결승에서 좀 저줘야 쓰것다.
태현 왜 그래야 뭘니까?
도끼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으니깐~ 콩밥 먹으러 가면
병어리 아가씨가 마음이 마이 아프지 싶은데~ 호호호.
내일 아침에 내가 거기로....

도끼가 말하는 도중에 정아가 나타나 태현의 팔을 끌고 나가려 한다.

도끼 어라, 유명한 아가씨께서~
사인이나 하나 해주시고 가시지. 호호호.

정아가 뒤돌아보는데 도끼가 음흉하게 웃으며가루약을 먹는다.

손등에 새겨진 도끼 문신을 본 정아의 눈동자가 갑자기 커지더니
머리를 잡고 고통스러워한다.

불을 지르는 도끼 문신이 새겨진 손을 떠올리며 기억이 되살아난다.

홍분하여 “어, 어, 어” 하며 숨을 헐떡이다 몸을 떨며 두려워한다.

도끼와 쫓치는 멍하니 쳐다보고 태현은 정아를 흔들다 끌어안는다.
정아가 계속 발광을 하다가 정신을 잃으니 업고 나간다.

도끼 가지가지 하는 구만.

#130. 고급술집

도끼와 도박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도끼 (가루약 먹고) 사장님들이 전부 헐랭이가 이기는
쪽으로 걸어버리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조자룡이

싸움소의 전설인데 그쪽에도 좀......

도박꾼1 이제 조자룡도 혈령이 한 테는 안 돼.
자네도 소보면 알잖아.

도 끼 그래도 싸움소의 전설인데~

도박꾼2 그럼 자네는 조자룡한테 걸게나~

도 끼 (잠시 생각) 좋습니다. 대신에 판을 좀 키우시죠.
다 때려 넣고 지던 이기던 이번으로 은퇴 할 랍니다.

도박꾼1 천하의 도끼가 은퇴를?

도 끼 눈이 침침해서 소도 잘 못 보겠고..... 하하하.

도박꾼 둘이 잠시 쑥덕이고 도끼는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도박꾼2 좋네. 자네가 동원하는 만큼 우리가 걸겠네.

#131. 싸움소 대기장 / 밤

혈령이 앞에 의자에 앉은 정아가 멍한 얼굴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

태현 갑자기 왜 그래? 영?

정아가 다시 몸을 떨며 두려워하자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어 준다.
잠시 후 스님이 오고 두 사람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스님 무, 무슨 일이냐?

태현 그놈들 보고 나서~

#132. 유홍가 골목

도끼가 가루약을 먹고 술집을 비틀거리며 나온다.

골목길을 지나칠 때 모자 쓴 사내가 지나치며 강호와 부딪힌다.

강호 넘어지고 사내가 고개를 꾸벅하며 일으켜 세워준다.

강호 똑바로 보고 다녀 새까~

사내가 골목 끝 가로등 불빛에서 모자를 벗는다. 차태현이다.

#133. 싸움소 대기장 / 밤

정아가 울먹이며 수화로 스님에게 뭔가를 설명한다.
놀라워하는 표정의 스님.

#134. 공터

스님이 걸어오는 태현을 보며 손을 흔든다.

스님 정아가 기억이 살아났다.

태현

스님 그놈이 불을 지른 놈이다. 도끼 문신 있는.....
 그런데 공소시효가~

#135. 싸움소 대기장 / 밤

정아가 무서워하니 태현이 두 손을 잡고 있다.

태현 나 믿지?

정아 (뻔히 보더니 고개 끄덕).....

(시간 경과 - 아침)

헬랭이에게 여물을 먹이는데 도끼가 나타나서 태현에게 노란 약봉투를 주며
여물에 타라는 몸짓을 한다.

태현이 시키는 대로 하니 도끼는 음흉하게 웃으며 떠나고
정아는 도끼를 노려본다.

#136. 경기장 / 오전

관중들 운집한 가운데 사회자가 등장하여 방송한다.

“자, 드디어 무제한급 결승전입니다. 싸움소의 연습 상대만 하다가 올라온 자재암의
헬랭이가 승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49전 무패의
전설적인 싸움소 조자룡이 승리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조련사 송정아씨의 헬랭이가 입장하겠습니다.”

관중들의 박수 속에 입장하는 정아와 헐랭이.
정아가 입장하며 관중석 쪽으로 바라보니
도끼가 가루약을 먹다가 정아에게 손을 흔든다.

모래판 중앙에 선 헐랭이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정아.

사회자 **자, 다음은 싸움소의 전설 무패의 주인공 황장썩씨의
조자룡이 들어옵니다.**

박수 속에 입장한 조자룡은 앞발로 모래를 파헤치며 전의를 다진다.
경기 시작되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쓰는 두 마리의 소

조자룡의 주인은 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하고, 정아는 손짓으로 지시를 한다.

소의 움직임에 따라 관중들 환호하고,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흥분한다.

도끼가 배를 만지며 얼굴을 찌푸린다.
한 시간이 넘어서도 끝나지 않은 대결상태.
갑자기 헐랭이가 입을 벌리며 숨을 헐떡거린다.

아나운서 **아~, 헐랭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해 설 자 **입이 벌어진다는 것은 숨이 가쁘다는 것입니다.**
 힘이 딸린다는 거죠.
 저런 경우 거의 다 꿈무늬를 빼게 되는데도
 잘 견디고 있군요.

관중석에 강호가 미소를 짓는다.

조자룡이 뒷다리에 힘을 주며 밀어 붙이니 헐랭이가 뒤로 밀린다.

관중들이 환호~
정아가 인상을 쓰며 손놀림이 바빠지니 헐랭이가 다시 밀기 시작한다.

조자룡의 빨치기에 당한 헐랭이의 머리에 피가 흘러내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독려하는 정아.

아나운서 아, 혈령이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 설 자 네~ 그렇습니다. 빨치기에 당한 것이죠.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정아를 크게 비춘다. 눈물 흘리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쳐진다.

아나운서 아, 지금 혈령이 조련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 설 자 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소가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겠죠!

관중들 혈령이를 외치기 시작한다.
소와 정아가 눈이 마주치자 혈령이가 힘을 쓴다.

도끼가 표정이 더 일그러진다.
관중속의 도끼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더니 “어, 어~” 한다.

카메라 도끼의 엉덩이 비추는데 물기가 축축하다.

혈령이가 마지막 힘을 쓰니 조자룡이 피하며 꿈무늬를 내뺀다.
관중들의 환호~

사회자 네~ 혈령이, 혈령이가 이겼습니다.
 싸움소의 연습상대이던 혈령이가 이제 새로운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혈령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중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조련사 송정아씨가 있습니다~

울타리 주변에 있던 태현 뛰어 들어와 정아를 안고 돈다.
정아는 목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으니 관중들 환호를 보낸다.

스크린에 그들의 모습이 크게 클로즈업.

관중속의 도끼 발밑에 오물이 흘러내리니 주변 사람들이 코를 벌렁거리며
뒤 돌아 보는데 도끼가 뒷머리를 잡고 쓰러진다.

꿈치 깜짝 놀라 도끼의 몸을 흔들더니 코를 권다.
챔피언 가운을 걸치는 헐렁이.

시상이 끝나고 태현은 정아를 태우고 헐렁이를 몰고 나간다.

#137. 경기장 밖 / 낮

들것에 실린 도끼가 괴로운 표정을 짓고,
구급대원들이 한손으로 코를 막고 읊기고 있다.

꿈치와 도박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경찰 봉고차에 수갑을 차고 오른다.

태현과 정아가 소를 몰고 가는데 40대의 남자(형사)가 앞에 선다.
태현이 정아에게 먼저 가 있으라는 눈짓.

형사

태현 (소를 차에 싣는 정아를 바라보더니) 하루만.....

#138. 자재암 대웅전 앞 계단 / 밤

정아와 태현이 돌계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태현 나 내일 어디 좀 가야돼.

정아 (뻔히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태현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

정아가 또 고개를 끄덕이니 태현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어 보인다.
사진 클로즈업.

자재암 대웅전 앞 계단에 앉아 정아에게 뽀뽀를 하는 태현의 사진이다.

정아가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을 감는다.
태현이 사진처럼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포즈로 뽀뽀를 한다.
화면 양분되면서 두 장의 사진이 나타난다.

#139. 자재암 경내 / 오전

스님과 정아 그리고 형사가 마당에 서있는데
태현이 부모의 영정에 절을 하고 나온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다가 정아의 눈물짓는 모습을 보더니 중단한다.

형사 (머릿짓하며) 가지.

태현은 스님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정아 앞에 선다.
정아가 급히 승방으로 뛰어가더니 목도리를 들고 나와 목에 둘러주고
눈물을 흘린다.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는 태현 한 번씩 뒤돌아본다.
스님과 정아는 쳐다만 볼뿐. 태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멍하니 있던 정아가 뛰어간다.

#140. 산길

산길을 내려가는 차를 보며 정아가 소리를 지르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정아 어, 어~

태현 뒤돌아보더니 손을 흔들고 정아는 말하려고 애를 쓰다가
말문이 터진다.

정아 기, 기, 기다릴게. 기다릴게~

태현이 차에서 내려 정아를 바라보니 계속 소리 지른다.

형사가 시계를 보며 경음기를 울리며 재촉을 한다.
정아의 시야에서 차가 사라졌다.

차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 태현.
눈물 흘리며 계속 소리 지르는 정아.

정아 기다릴게. 기다린다고~ 기다릴게~

자막 : 2년 후.

대웅전 돌계단 아래에 돌탑이 세워져 있다.
소타고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끝”